

길림시 여성사업의 번영발전과 함께해온 30년

11월 8일, 길림시 화남호텔에서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30주년 경축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에 길림시당위 통전부와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 길림시부녀연합회,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 길림시조선족중소학교, 길림시회족소학교,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길림시조선족탁구협회, 길림시창용구영창사회구역 등 길림시 정부기관과 학교, 민간단체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리옥란 회장은 개막사에서 “30년간 협회는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와 배려하에 길림시 여러 분야의 조선족 여성회원들을 이끌고 일심단결하여 시대의 주선물에 따라 민족문화를 힘써 고양하고 여러 민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에 힘을 이바지해왔다. 향후에도 취지를 명심하고 초심



을 잊지 않으면서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 림정옥 부주임은 축사에서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가 그동안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

수여받았고 조정화 전임 회장은 길림시당위 선전부와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강성의 좋은 사람, 가장 아름다운 민족단결의 별 영예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민족단결진보선진개인으로 표창받았으며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가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새시대 중화민족 한가족, 민족단결진보의 길에서 모범 역할을 발휘할 것을 바랐다.

행사에서 길림시회족소학교 양영 부교장이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가 다년간 회족소학교 어린이들을 도와준 공로를 기리며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여성협회 임회 25년 이상 회원들인 박영자, 최옥련, 유명화, 리련희, 김순옥, 김옥련, 김옥녀, 리영자, 김정희 등 로회원들에게 상패를 발급했다.

또 박건국, 신현산, 리만주, 김승혁, 김인덕, 리성태 등 본 협회 공익강사들에게 감사상을, 박경희에게는 공로상을, 홍경자에게는 수호상을, 신옥화와 오련숙, 강성미, 방춘란, 김길순에게는 공헌상을, 조정화 전임 회장에게는 특별공헌상을 수상했다.

행사 2부에서는 협회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오프닝 댄스 <조국송>을 시작으로 남녀소합창 <이 아름다운 땅>, 무용 <상모춤>, 협회 예술단의 기악합주, 길림시심리상담센터의 여성독창 <산노래 불러 당에 드리네>와 길림시민족친목회의 남성독창 <우정을 위해 견배> 등 종목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공연자들과 래빈 일동의 기념사진 촬영을 마감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 2부에서는 협회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오프닝 댄스 <조국송>을 시작으로 남녀소합창 <이 아름다운 땅>, 무용 <상모춤>, 협회 예술단의 기악합주, 길림시심리상담센터의 여성독창 <산노래 불러 당에 드리네>와 길림시민족친목회의 남성독창 <우정을 위해 견배> 등 종목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공연자들과 래빈 일동의 기념사진 촬영을 마감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겨울 3개 설상 종목 월드컵 길림시서 개최 예정

최근, 길림시는 ‘대동산수 강성환성’ 길림시 고품질 발전 계획 제 17차 방설시험구 전문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최근년간 길림시 방설시험구는 빙설운동, 빙설문화, 빙설장비, 빙설관광의 ‘4+X’ 산업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빙설산업의 형태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급 슈퍼스키대구역, 세계급 빙설산업기지과 빙설관광목적지를 서둘러 건설했다.

2024년, 길림시 방설시험구는 세계급 빙설산업기지과 세계급 빙설관광목적지 건설을 둘러싸고 길림만과 (万科)-북대호 북위 43도 세계슈퍼스키대구역을 구축함으로써 빙설경계의 고품질 발전으로 길림전흥의 출산적 돌파를 위해 벤치마킹 (标杆)을 수립하고 형신 (形神)을 겸비한 성역 부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탤다.

올해, 빙설시험구는 전원이 투자유치에 나서 루계로 중점기업 근 300개를 런칭시키고 새로 계약한 대상이 13개이며 투자유치 조달자금은 25억 700만원에 달한다.

대상건설의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쥐고 5,000만원 이상의 성, 시 중점 대상 15개를 질서있게 착공하여 루계로 5억 7,500만원의 투자를 완수하였다.

‘빙설+피서’ 쌍륜 구동을 견지하여 시험구중의 북대호스키장은 이미 아시아 단일체 최대 규모의 스키장으로 되었다.

비설기 관광상품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였는데 북대호스키휴양지는 처음으로 여름철 운영을 실현했다.

한편, 2024-2025 세 빙설시즌에는 21개의 경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구 레년이래 경기행사가 가장 많고 규모와 차원이 가장 높으며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시즌으로 된다.

특히 국제빙설리맹 공공기교 월드컵, 설상기교 월드컵과 스노보드장애물추격 월드컵 등 3개 월드컵이 룽속 세 빙설시즌에 북대호스키휴양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대호스키휴양지에서 국제급 대회가 열리는 것은 8년 만이다.

경로는 마음에서, 로인 사랑은 어려서부터



10월 중순,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이 주최한 길림시시학원양로원 위문공연 장면.

지난 10월, 우리 나라 열다섯번째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길림시민정국은 전 시 각 사회조직을 동원하여 로인들을 대상으로 위문, 무료건강검진, 자원봉사 등 활동을 전개하고 경로정신을 고양하여 로인들에게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경로의 달’ 행사의 주제로 ‘로인 중심 견지, 로인 친화적 사회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가운데 길림시민정국은 통지를 발부하여 위문과 사랑부족 활동을 전개하고 로인을 조직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법률 선전 및 봉사 사업을 강화하고 건강지식 보급과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면의 포치를 하고 각급 민정부문, 전 시 사회조직 등 다방면의 력량을 동원하여 경로애로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10월초, 길림시교육학회 사업일군들은 길림시우성양로센터를 찾아 ‘정온금추 (情暖金秋), 경로동행’ 주제공익활동을 개최하여 로인들의 수요를 적극 료해하고 파악한 동시에 로인들에게 휴지, 성인간호매트, 가루비누 등 생활물품을 보내주었다.

중앙절 당일, 길림시북간상회는 회원기업을 조직하여 평덕안양로쌍비스유한회사 창업지사 평덕안강양원을 방문하고 수건, 비누, 치약, 지출 등 일용품을 전달했으며 의료 일군들은 로인들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진행하였다.

미용업종협회는 만서성에서 공익 활동을 개최, 10여개 미용점의 리발사들이 100여명의 로인들에게 리발 봉사를 제공했다.

‘경로의 달’ 기간에 길림시사씨비스협회의 주도하에 여러 애심사회 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양로원, 주택단지에서 심입하여 만두빚기, 서예, 전지, 이야기 들려주기, 취미경연, 가무공연, 의료봉사 등 활동을 전개하여 로인들에게 따스함을 안겨 주었다.

길림시사씨비스협회 회원단위인 길림동학관 (童学馆)에서는 효로경친활동을 개최하였는데 선생님들이 생동한 언어로 아이들에게 효로경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화 (手语) 무용 중화효도, 효친경차 (孝亲敬茶)’ 등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경로애로의 마음을 품고 중화 전통 미덕을 고양하도록 했다.

“경로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고 로인 사랑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로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전통 미덕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길림동학관 관계자는 말했다.

오화선 서란료금소 료금 징수 만료

“왕복 20원의 통행료, 일년치면 적지 않은 돈이죠.”

11월 5일, 오화선 (五桦线) 서란료금징수소가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출퇴근할 때 오화선 서란료금소를 경유해야만 하는 시민 조우는 감개 무량함을 금지 못했다.

오화선 서란료금징수소는 길림성 정부의 동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재정청, 성교통청이 발표한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료금 징수 기한은 2004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로 10월 31일부터 오화선 서란료금징수소는 료금을 받지 않게 되었다. 현재 료금소 쌍방향은 모두 열렸고 통행 차선은 모두 무료 차선으로 조정됐다. 교통부문은 광범한 운전사들에게 료금소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운행 안전을 확보할 것을 부탁했다.

《항일민족영웅 양정우》, 2024 다큐멘터리대회 1등상 수상

—‘새 로정 기록’ 2024 다큐멘터리대회 길림시서



반석시 양정우광장의 양정우 장군 동상

일전, ‘새 로정 기록’ 2024 다큐멘터리대회 개막식이 길림시 세계무역만금호텔 길림청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 다큐멘터리 종사자들이 북극 강성에 모여 새로운 시대 배경하에서의 다큐멘터리의 발전과 혁신 등 관련 화제를 둘러싸고 연구토론과 교류를 전개하고 중국 다큐멘터리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길림성의 다큐멘터리 브랜드 전파력과 영향력 향상을 도왔다.

중국라디오텔레비전방송사회조직연합회 회장 범위평, 길림시 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왕길, 길림성당위 선전부 부부장이며 성정부 보도판공실 주임인 왕위동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국가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 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발전연구센터 전략연구소 소장이며 중국라디오텔레비전방송사회조직연합회 다큐멘터리 위원회 회장인 조침이 개막식을 사회했다.

길림성당위 선전부 부부장이며 길림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 국장인 류철탁, 길림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시장 위 선전부 부장인 마연 및 행사 주최, 주관 단위 지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라디오텔레비전방송사회조직연합회와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중국라디오

텔레비전방송총국 계획원 부원장 등 용이 <더 많은 정품, 기술갱신, 더욱 넓은 전파—CVB2024 다큐멘터리 시청 동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언을 했으며 길림 다큐멘터리 주제 선정 제안 발표 활동을 전개하여 2025년에 길림성이 제작하게 될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설명했다.

개막식후 ‘다큐멘터리 정품 창작과 국제 전파의 고품질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제포럼활동을 개최하고 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과 하북, 광둥, 중경 등 지방 라디오 텔레비전방송국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종사자들이 업계의 전문가, 학자들과 창작 경험과 심득을 광범위하게 교류 공유함과 동시에 시장 확장, 뉴미디어 플랫폼홍과 국제 전파 경로 운송 등 화제를 둘러싸고 깊이있게 토론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2023년도 우수다큐멘터리 표창 행사가 열렸는데 41개 작품이 각기 상을 받았다.

그중 길림시당위 선전부와 길림시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이 련합으로 출품한 다큐멘터리 《항일민족영웅 양정우》가 중국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 2023년도 라디오텔레비전방송프로상 초기 평가 다큐멘터리 1등상을 수상했다.

다년간 길림 다큐멘터리는 본토에 립각하여 주제를 깊이있게 발굴하고 국제화 시각으로 길림이야기, 중국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차례 국내외 중요한 상을 수상했다.

《장백산》, 《인삼》, 《동북항련》 등 우수한 작품으로 광중들의 좋은 평판을 얻은 동시에 특유의 영상력사료가치, 문화전승가치, 사상예술가치와 사회전파가치로 길림 다큐멘터리를 전 성의 중요한 문화지리표지로 만들었다.